

전기찬 농식품유통공사 신임 상임이사 임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홍문표)는 4월 30일자로 신임 상임이사(수출식품이사)에 전기찬 기획조정실장(사진)을 임명했다.

전기찬 신임 수출식품이사는 1993년 공사에 입사한 이래 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지속가능경영실장, 중국수출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현장 중심의 수출 경험과 전략적 기획 역량을 고루 갖춘 전 이사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리더십과 조율 능력으로 공사 내부에서도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

공사 수출식품이사는 수출전략처, 수출기반처, 해외사업처, 식품진흥처, 수산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 임기는 2년이다.



/이만호 기자



임실경찰, 임실N팻스타 안전관리 대책회의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송)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2025 임실N팻스타' 대비, 각 과장 및 파출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과 세부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제장에 대규모 인파가 일시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관람객 밀집으로 인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조치 사항, 교통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경찰, 올해 첫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는 지난 29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외부위원 2명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20대 여성의 소액 도박 사건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훈방 결정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소방서, 춘향제 행사장 안전지킴이 봉사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남원 의용소방대연합회가 4월 30일부터 7일간 남원시 관한투원과 요전 일대에서 열리는 제95회 춘향제에 250여명의 대원을 투입해 축제장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1개대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대장 및 대원이 오전과 오후, 저녁 시간대에 축제장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

고창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일부터 6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창소방서는 이 기간 동안 전통사찰과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소방서, 전통사찰 화재예방 순찰 활동 강화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한 화재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 근무는 관서장 등이 직접 주요 사찰을 방문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예방 수칙과 초기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 대표 문화축제인 춘향제(4월 30일~5월 6일)와 겹치는 일정으로, 다종인원이 모이는 행사 특성을 고려해 예방과 대비·대응에 있어 한층 더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리 고장 국가유산, 우리가 돌본다’

고창군, ‘내고장 국가유산 돌봄 봉사단’ 발대식… 총 136개 단체 참여

고창군이 지난 30일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내고장 국가유산 돌봄 봉사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내고장 국가유산 돌봄 봉사단’은 고창군 기관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함께 하는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에 있는 소중한 국가유산을 정비하고 알리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군에서는 지난 3월 각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조사하여 모집한 결과 103개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실관과소와 읍면까지 총 136개 단체가 봉사단 활동에 함께하게 됐다.

내고장 국가유산 돌봄 봉사단 활동은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정화활동(청소), 배수로 낙엽제거, 잡초 제거, 화재감시, 모니터링 등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국가유산 홍보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고창군 전역의 국가유산을 상시적으로 돌보며, 군민들이 국가유산을 보다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과 국가유산 보호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각 단체별 위촉장 수여, 대표자 선서와 함께 고창 인구 5만 지키기 나 부터 함께를 다짐하



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

발대식 이후에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돌봄사업 평가위원 이도범 감사의 ‘국가유산 돌봄 봉사단 활동 방법’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유산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생생한 역사이고, 인류문화의 자산이다”며 “조상들이 남겨 놓은 국가유산을 온전히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 자경위, 춘향제 기간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홍보

광한루원 일대 홍보부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95회 춘향제 기간(4월 30일~5월 6일) 동안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 홍보부스를 운영,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시책을 소개하고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홍보 활동에 본격 나선다.

이번 홍보는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최적지임을 전국에 알리는 한편,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부스 운영은 전북경찰청, 남원경찰서, 전북고통문화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 추진된다.

홍보부스에서는 자치경찰제 주요 정책을 쉽고 친숙하게 소개하며, 순찰차량·싸이카 등 실제 경찰장비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안심주차번호 스티커 배부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아동·노인 실종사고 예방을 위한 지문 사진등록 서비스도 현장에서 제공한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인지·지각능력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통안전에 대한 고령층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홍보도 함께 본격화된다.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는 남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남원의 지리적 중심성, 전통과 교육의 조화, 풍부한 인프라 등 유치 강점을 다채로운 콘텐츠로 소개한다.

홍보부스에는 유치 당위성을 시각적으로 설명한 홍보 패널과 부채 등 실용적인 홍보물품을 비치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치 서명 이벤트도 진행해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진안 사회복지협의회, 후원물품 전달식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는 지난 30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동편의용품 및 후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진안제2농공단지에 위치한 (주)그린파이프(대표 고영민)는 이날 전달식에서 3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해 협씨는 제일약국 서예영 약사도 구충제 2,000정을 기부했다. 올해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외에도 지역 아동센터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령면 주민 유순화씨는 정성껏 담긴 김치 240kg을 기부하며 운정을 보냈다. 유씨는 지금까지 총 1,000kg에 이르는 김치를 기부했으며, 기부 물품은 관내 독거노인 및 복지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거동에 불편을 겪는 90가구를 대상으로 보행 보조차 등 총 4종의 편의용품도 함께 제공했다.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회장과 자원봉사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전손잡이 설치가 필요한 가구에는 설치 및 사용 방법까지 안내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안군, 귀농귀촌 멘토 컨설턴트 등 위촉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9일 귀농귀촌 멘토 컨설턴트 2명과 동네작가 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귀농귀촌 멘토 컨설턴트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신규 귀농귀촌인들의 주요 애로 사항인 영농분야 컨설팅과 농촌 빈집 및 농지 소개 안전적 정착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부안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동네작가 5명은 부안의 일상을 담아 마을과 지역문화, 영농 현장, 귀농귀촌 생활, 관광지 등을 직접 경험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동네작가 개인 블로그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동네작가는 그동안의 SNS 활동 이력,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홍보 계획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정해란 소장은 “이번 귀농귀촌 멘토 컨설턴트와 동네작가 활동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지역 생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립군산대, 거리공연 프로젝트 내달 4일까지

국립군산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캠퍼스 거리공연 프로젝트 ‘캠퍼스 VIBES’를 교내 노천극장에서 오는 6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VIBES’는 학내 버스킹 문화를 활성화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캠퍼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다채로운 공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 같은 행사로 기획됐다.

지난 29일 첫 행사에서는 학내 음악 동아리들이 선보인 수준 높은 버스킹 공연을 선보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학생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거리노래방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보컬, 밴드, 합창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썸’, ‘등대지기’, ‘활룡’, ‘로컬플레이어’ 등 학내 음악 동아리의 정기 공연도 개최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이리여고, 원광대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맞손’

이리여자고등학교(교장 성선화)는 지난 30일 원광대학교(입학관리처장 서정석)와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과 지역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원광대학교의 전문 인력, 시설,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리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체험 활동 지원 △고교학점제 및 공동교육과정 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미래 유망산업 분야 전문가 특강 지원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이다.

서정석 입학관리처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선화 교장은 “학생들의 진로 역량과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성장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JOB DAY 취업박람회 개최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9일 체육관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5년 JOB DAY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업박람회에서는 산업체 인사담당자 채용정보설명회,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대비 1분스치피, 청년 고용정책 및 내일배움카드 안내, 이벤트부스 등을 운영했다.

행사에 참여한 산업체 인사담당자는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포기하고 은둔형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노동부 사업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행사가 다양하게 운영되는게 좋아 도내 일자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재학생 및 졸업생과 지역청년들에게 더 많은 채용정보 제공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산업체를 발굴하고,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